

‘천년이음 나주배’ 명품브랜드 육성 고품질 재배관리 나서

시장인증 품질보증제 컨설팅
참여 농가 30명 대상 기술 공유
토양·수분·수확 관리 등 소개

나주시가 대표 브랜드인 ‘천년이음 나주배’ 고품질 재배관리에 나선다.
나주시는 최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시장인증 품질보증제’ 참여농가 30명을 대상으로 1차 종합컨설팅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컨설팅은 품질보증제 운영 내실화와 나주배 고유 브랜드인 ‘천년이음 나주배’의 품질 고도화 및 재배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년이음 나주배’는 나주시장이 품질을 보증하는 프리미엄 나주배 브랜드로 재배부터 유통까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
컨설팅에는 강삼석 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장을 비롯해 최진호 농업인상담소장, 유재문 화상병예찰반장, 정송이 나주APC과장 등 재배 및 유통분야 전문가들이 컨설턴트로 참여했다.
컨설턴트들은 주 재배품종인 ‘신화’, ‘창조’ 배의 생육 특성과 토양 및 수분관리, 수확 후 관리 요령 등을 소개하고 농가별 재배환경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기술지도 방향을 제시했다.
2024년산 ‘신화’, ‘창조’ 배 출하 결과 분석과 농가별 토양 특성, 재배 방식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뤄져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품질 향상 방안 도출에 초점을 맞췄다. 참여 농가들은 전문가와 고품질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현장 예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참여 농가들은 “전문가와 직접 소통하며 재배 방향을 재검점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기상 악화로 인한 품질 저하 문제를 이번 컨설팅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주시는 올해 하반기 2차, 3차 컨설팅을 통



나주시가 최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시장인증 품질보증제’ 참여농가 30명을 대상으로 제1차 종합컨설팅을 실시했다. 나주시 제공

해 참여 농가의 과원을 직접 방문하고 숙기판정, 품질관리 등 맞춤형 현장기술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천년이음 나주배는 나주시장이 품질을 보증하는 만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명품 브랜드로 키워야 한다”며 “전문가와 농업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나주향교 마당창극 ‘금성별곡’ 6일 공연

나주시가 오는 6일 나주향교 명륜당 앞마당에서 국가유산청의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 제작한 나주향교 오지네 프로그램 마당창극 ‘금성별곡’을 선보인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금성별곡은 전통문화의 숨결이 살아 있는 나주향교에서 나주향교만의 역사와 이야기를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이다. 향교의 전통적 가치와 기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화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금성별곡은 나주향교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조선시대 유학 문화, 지역 공동체의 이야기, 나주의 정신적 뿌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공연 콘텐츠다. 마당창극 형식으로 관객과 호흡하며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국가유산주

간’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공연은 전통문화의 계승 및 확산, 나주향교가 현대 사회에 맞는 문화 발전소로 자리매김하는 의미 있는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는 공연과 연계해 나주향교의 콘텐츠를 활용한 전통놀이 소대회 등 브랜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나주향교를 도심과 공존하는 ‘나주읍성 문화권’ 대표 관광 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고유의 유산을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나주향교 오지네는 낮 12시부터 전통놀이 소대회 예선·본선과 전통놀이 체험, 오후 3시부터 마당창극 ‘금성별곡’을 공연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다.
나주=이재순 기자

농업인 가공 아카데미 교육생 11일까지 모집

나주시와 (재)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은 2025 농업인 가공 아카데미 2차 교육과정 교육생 15명을 11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은 16일부터 2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나주시 동수농공단지 내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실시한다.
대상은 나주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요건을 갖춘 농업인이다. 교육 내용은 안전관리 인증기준 위생 실무 교육, 가공 창업 성공사례, 식품 유형별 가공 기술 및 설비 이해, 지역 농특

산물을 활용한 스콘, 쿠키, 장아찌 등 제품 실습 등 실전 중심으로 구성했다.
수료생에게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 및 장비 이용 기회, 시제품 제작 및 창업 컨설팅,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 참여 기회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은 교육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서 11일까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2동을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나주=이재순 기자

영산강정원 조성·활성화, 민관 협력체계 구축

JB가든센터·오앤오팜하우스 협약

나주시가 새로운 영산강 시대 도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나주시는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영산강정원 조성 협력을 위해 JB가든센터, 오앤오팜하우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와 JB가든센터 김정범 대표, 오앤오팜하우스 김근수 대표가 함께 했다.
협약은 영산강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정원의 대표 공간 조성조경 연출,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이 함께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영산강정원 조성조경과 활성화를 목표로 정원 관리와 홍보, 행사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나주시가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영산강정원 조성 협력을 위해 JB가든센터, 오앤오팜하우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나주시 제공

윤병태 나주시장은 “정원 분야 최고의 전문성과 열정을 겸비한 업체 역량을 영산강정원에 아낌없이 써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공직자 해외테마연수 정책 반영 결과보고회

나주시가 해외연수를 통해 우수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결과보고회 자리를 마련했다.
나주시는 최근 영강동 어울림센터에서 2024년 공직자 해외테마연수 결과보고회를 개최했

다고 1일 밝혔다. 보고회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7일까지 진행된 해외연수에 참여한 5개 팀 41명의 공직자가 미국, 유럽 등 7개국에서 체험한 정책 우수사례와 연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시정에 적용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했다. 행사에는 간부 공무원들을 비롯해 연수 참가자와 관심 있는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팀별 발표를 통해 연수 목적과 주요 사례, 정책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연수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 심사에 참여했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5개 팀이 자체적으로 연수 계획을 수립해 실행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최고의 품질과 성실 시공으로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엠에이주식회사

화장실 칸막이, 실내벽체 마감패널, 이동식 화장실, 벽천장용 흡음재

조달청등록업체

TEL. 062) 710-1800 FAX. 062) 710-6662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창동 730-8